



일본 보험사, HSBC의 손보사업 부문 인수전 참여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영국 HSBC 홀딩스의 손해보험사업 부문 인수를 위해 일본계 손해보험회사 그룹 3사(미츠이스미토모 해상, 동경해상홀딩스, NKSJ홀딩스)가 10월 12일 각각 입찰에 참여함.
 - HSBC는 영국, 프랑스, 홍콩, 싱가포르, 남미에서 손해보험사업을 전개하여 연간 12억 달러 규모의 수입보험료를 거두고 있으며,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의 수입보험료가 연간 4억 달러에 달함.
 - 이번 입찰에는 HSBC가 진출한 아시아 지역 방카슈랑스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손해보험사업 부문이 매각대상에 포함되며, 예상 매각액은 약 10억 달러 규모로 프랑스의 AXA그룹과 글로벌 보험그룹도 입찰에 참여함.

- 유럽의 경우 그리스 재정위기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,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규제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금융그룹들이 비주력 사업 매각에 나서고 있음.
 - HSBC는 지난 5월 35억 달러의 사업비 삭감방안으로 비핵심 자산 매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, 이후 손해보험 부문의 매각에 관한 정보를 매각 주간사에 제공한 바 있음.
 - HSBC는 기업들이 제시한 인수금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 중에 매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밝힘.

- 일본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면서 국내 시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에 따라 M&A에 의한 현지 보험회사 인수를 통해 해외 보험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음.
 - 특히, 동경해상그룹, 손보재팬(NKSJ홀딩스 산하),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과 같은 일본 대형 손보사 그룹 등이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유럽 보험시장 진출전략을 확대하고 있음.
 - 또한, 최근 엔화 강세를 무기로 일본 기업들이 해외기업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입장임.

(요미우리신문 10/13, 로이타, 니혼게이자이, 마이니치신문 10/5 뉴스 종합)